

PD4) 경주국립공원 탐방객의 이용·관리의 중요도-만족도 분석

한재경·우형택¹⁾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¹⁾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원에조경학부

1. 서론

경주국립공원은 불국사, 석굴암 등 주요문화재를 중심으로 남산, 토함산 등의 8개 지구로 분산되어있다. 경주국립공원의 연간 총 탐방객 수는 274만여 명으로(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다. 경주국립공원 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립공원의 요소에 대한 탐방객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국립공원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야한다. 국립공원의 탐방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는 다수 있으나(Seo et al, 2002) 국립공원 보호에 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주국립공원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보호, 탐방, 편의 요소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보호와 관리정책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조사장소는 경주국립공원지구 중 탐방객의 방문이 가장 많은 토함산지구와 남산지구로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8년 8월 17일에 경주국립공원 탐방지구 내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40부를 회수하였으며 유효 설문지 132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도구는 보호, 탐방, 편의에 관한 항목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각 15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이용하여 T-test,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SA)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ISA분석 결과, 높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우선시정 문항은 ‘생태계보호’, ‘야생동식물 보호’, ‘탐방객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노인 또는 장애인 탐방시설’이다.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가야산국립공원 연구에서 탐방객은 편의와 이용에 관한 문항들만 우선시정이 필요(Han, 2017)하다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경주국립공원은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보호에 대한 정책을 강력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에 따라 환경과 탐방객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으며, 개별 국립공원 단위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우선순위가 낮은 문항은 ‘해설 프로그램’, ‘탐방지원센터’, ‘농산물 판매 행위’이다. 대부분의 해설 프로그램은 일정 인원이 모집되어야 진행하기 때문에 단체 탐방객이 아니라면 이용이 제한적이다. 과잉노력 문항은 ‘탐방로 설치 및 관리’,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이다. 경주국립공원의 탐방로는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탐방객이 사용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강점현상유지 문항은 ‘자연환경과 인공시설의 조화’, ‘자연경관 보호’, ‘사찰/문화재 관리’, ‘교통 및 주차장 시설’,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 ‘전반적인 탐방 분위기’이다. 각 문항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하였다. 그 결과 14개의 문항의 만족도가 중요도에 비해 낮았다($p < 0.000$). ‘농산물 판매 행위’는 중요도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경주국립공원은 탐방로와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야생동식물과 생태계를 보호할 관리방안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4. 참고문헌

- Han, J. G., 2017, A comparison of environmental attitude between interest groups and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in Gayasan National Park, MS., Daegu Catholic Univ.
Korea National Park Service, 2017, <http://www.knps.or.kr/front/portal/stats/statsList.do?menuNo=7070020>.
Seo, E. C., Sim, K. W., Lee, J. K., 2002, A study on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National Park facilities management based on visitor characteristics, J. Kor. Inst. For. Rec., 6, 63-71.